

의성군, 제1호 청년창업 결혼커플 탄생

김현주·한승훈작가 백년해로 맺어 김주수 의성군수, 청년친화도시로 거듭 태어나는 청년정책추진 최선

의성에서 제1호 청년창업 결혼커플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바로 의성군에 정착한 청년 예술가 김현주작가다.

김 작가는 지난 1일 단촌면에 위치한 고운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 김주수 의성군수와 김현주

작가가 의성군에서 인연을 맺고 정을 나눈 지역 주민 수십 명과 현재 거주중인 고운마을 거주 주민, 의성군 관계자가 참석 자리를 빛냈다.

김 작가는 2021년 의성군에서 추진한 청년예술가 대상 지역 살아가기 프로그램인 '예술가 일촌맺기'에 참여, 의성군과 인연을 맺었다.

같은해 창업 지원사업인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에 선정, 옛 목욕탕을 복합문화공간인 '안계미술관'으로 새단장해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배우자인 한승훈 작가 역시 2021년 '예술가 일촌맺기'에 참여, 2023년 안계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지역과 지속적인 연을 맺어왔다.

결혼식에는 지역에 정착한 청년창업자들이 총 출동 △결혼사진 촬영 △현장 영상촬영 △하객 식사 준비 등을 마련했다.

의성군이 그간 추진한 청년유입 사업의 성과를 한눈에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군은 청년유입 및 지역정착을 위한 지

역맞춤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결혼장려금 지원 및 주거비용 지원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청년이 살기 좋은 의성군이 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이 어느덧 결실을 맺고 있음에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의성군이 청년들의 사랑이 익어가는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김주수 의성군수가 지난 1일 고운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린 김현주·한승훈작가 부부를 축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의성군제공)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물 좋기로 소문난 '예천(醴泉)' 신비로운 땅에서 자란 농산물의 기운을 담았습니다.

NAVER 예천장터 검색창에서 예천장터를 검색하세요!

주문 및 상담안내: (054)650-6280



예천군 우수한 농특산물 소평물 예천장터 www.ycjang.kr

달성군여성자원봉사단, 관내 농가 농손일손돕기 펼쳐

달성군여성자원봉사단은 달성군여성자원봉사단과 지난 8일 일손이 부족한 달성군의 양파 농가를 돕기 농손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자원봉사자 40여 명은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유기읍 지역의 농가를 방문하여 양파 수확을 도왔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농촌 일력의 감소와 고

령화 등으로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를 실천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국가유공자 전국 최고 예우”... 예산 33억 편성

전국 최초 90세 이상 참전유공자 특별 명예수당 지원 공적비 건립,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유공자 예우 강화

달성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 고취를 목표로 최고의 예우를 갖춘 섬김 행정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6월 6일 현충일뿐 아니라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차별화된 보훈복지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보훈 관련 예산 33억 3000만 원 '역대 최대' ... 지자체 첫 특별명예수당도

달성군은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다.

총 33억 3000만 원으로, 달성군 보훈 관련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 내용은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

당 27억 3,000만 원 △참전유공자 특별 위로금 및 사망위로금 3억 원 △90세 이상 참전유공자 특별명예수당 2억 450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및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 위로금 5500만 원 등이다.

보훈예우수당은 전문경력, 순직군경, 특수임무수행자, 애국지사 유족,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1200여 명에게 매월 7만 원 지급하던 것을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참전명예수당도 매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려 770여 명에게 지급 중이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역시 매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해 18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편성한 참전유공자 특별 위로금 30만 원도 매월 지급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90세 이상 참전유공자 특별명예수당이다.

대부분 고령인 참전유공자들이 더 늦기 전 조금이라도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원금액은 17만 원이며 100여 명에게 지원한다.

호국 영웅의 명예를 드높인다... '일상 속 살이 있는 보훈' 분위기 확산

달성군은 군민들의 일상 속 호국보훈 분위기를 확산하는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호국 공적비 건립이다.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계 중이며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다.

보훈회원들의 오랜 염원이던 이 공적비에는 상이군경회 372명, 고엽제전우회 688명, 특수임무유공자회 13명의 이름을 새긴다.

완성한 시설은 후손들의 국가안보 의식을 높이는 교육의 장으로도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대구시 구군 중 처음으로 군청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2면을 설치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균형을 찾는 국가유공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군민들도 이들을 향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현풍읍에 있는 충훈탑에는 예산 1,400만 원을 들여 계단 중앙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했다. 고령

의 보훈가족들이 계단이 많고 경사가 가파른 충훈탑 입구를 조금 더 수월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보훈가족 자부심 채우는 기념행사 확대

달성군은 매년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행사, 향군 창설 한마음 단합대회, 안보결의대회 등 보훈단체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보훈가족을 향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기념행사는 최근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행사가 지역 내 전체 보훈가족을 위한 '달성군 보훈가족 감사한마당'이다. 행사는 지난해 처음 시작돼 매년 표창 수여, 감사패 전달, 기념공연 등의 의미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5월 29일 이 해의 파병용사의 날로 제정된 지난해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해의 파병용사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했다. 올해도 이역만리 떠나면 나라에서 젊음을 바친 400여 명의 해외파병용사를 위한 의정대 공연 등이 풍성하게 펼쳐졌다.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색다른 이벤트도 준비했다.

호국영웅 가정 30곳을 방문해 가족사진을 촬

영한 후 액자에 담아 전달하는 활동이다.

촬영팀 역시 헤어메이크업 전문가 및 사진작가로 구성해 특별함을 더했다.

보훈대상자가 희망할 시에는 장수사진(영정 사진)도 촬영한다.

보훈가족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는 행사다.

안보현장을 방문하는 '보훈단체 안보 큰 걸음 행사'도 다음 달 열린다. 6.25참전유공자회 달성군지회를 중심으로 달성군의 10개 보훈안보단체가 함께한다.

이 밖에도 전문·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국가보훈부의 경제·정서적 맞춤형 종합 지원 사업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달성군수멘토 위촉, 국가유공자 우대 병원 지정 운영 등 달성군의 '보훈이 빛나는 달성군'을 실현하기 위한 세심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듬는 것이 지역의 책임이다”라며 “충충하고 두터운 보훈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는 달성군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북구청, 2024년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인당 35만원 지원

북구청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적응 등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교육부 주관 지자체 대상 첫 공모사업으로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1인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 북구청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해는 총 72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전국 총 9000명 정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은 6월 17일부터 7월 12

일까지이며 보조금 24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선정 방법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우선이며 그 다음으로 중증도,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 이후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평생교육희망카드'를 발급받아 전국 평생교육기관 2,880개소(대구 152, 북구 22)에서 외국어, IT, 자격증 등 강의 수강료 및 교재비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강좌를 모두 수강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적인 자립을 돕고,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북구 강북보건지소 '심뇌 제빵소' 운영



북구보건소 강북보건지소는 대구과학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과와 연계하여 심뇌혈관질환예방을 위한 저염·저당 빵을 만드는 '심뇌 제빵소'를 운영한다.

심뇌 제빵소는 대구과학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과 학생이 직접 저염·저당 베이커리 레시피를 개발하고 만성질환자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건강빵을 만들어 대구과학대학교 학교기업 레플 베이커리에 출시한다.

건강관리가 취약한 2030을 주타겟으로, 대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건강한 디저트 출시를 통해 20대 젊은층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한 식습관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학생 심뇌 제빵소는 심뇌혈관에 대한 이해와 만성질환자를 위한 영양 식습관 교육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예방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후 조별 토의 및 실습을 통해 레시피를 개발하고, 개발된 레시피는 최종 평가를 통해 출시하게 된다.

이영숙 북구보건소장은 “전문학부 대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심뇌 제빵소 운영을 통해 2030 젊은 세대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심뇌혈관질환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수성구 대구·경북 6개 대학 총학생회 제6회 수성구청년축제 추진 업무협약

수성구청은 지난 7일 수성구청 소회의실에서 대구·경북 소재 6개 대학 총학생회와 '제6회 수성구청년축제' 및 청년 친화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김대권 구청장을 비롯한 수성구청 관계자와 경북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수성대학교, 영남대학교 6개 대학의 총학생회장과 학생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성구청년축제 참여를 위한 각 대학 네트워크 구축 △대학생 청년 정책 참여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청년 정책 및 추진사업 홍보 협조 등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 5개 대학(경북대, 경일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과 일반 청

년들이 청년연합팀을 결성, '우리 학교를 수성하라'는 슬로건 아래 제5회 수성구청년축제를 개최해 청년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축제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올해는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수성대학교가 새롭게 참여해 제6회 수성구청년축제를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는 언제나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경북 청년들이 주체가 되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청년의 꿈과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수성구청년축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글로벌 강소·강소+기업' 대구 7개사 선정, 글로벌 탐티어 도전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강소, 강소+'에 지역기업 선정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각종 금융 우대를 통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는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 강소+'에 지역기업 7개사가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수출액 규모별로 '유망(10만~100만 달러)-성장(100만~500만 달러)-강소(500만~1000만 달러)-강소+(1000만 달러 이상)'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역에서는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강소, 강소+ 단계에 24개사가 선정됐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요건심사→현장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7개사가 선정돼 13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갖는다.

선정된 7개사의 2023년 평균 매출액은 709억 원, 수출 2644만 달러, 고용은 75명, 2022년 대비 성장률은 매출 101.3%, 수출 123.7%, 고용 18.9%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선정됐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거림테크(주)는 OLED를 기초로 한 다양한 가능성 필

름과 테이프 부품을 생산하는데 애플,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협력업체이며, 차량용 디스플레이 부품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2년간 R&D 기획,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대구광역시의 지역자율 프로그램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사업(R&D), 해외 마케팅 지원 및 민간-정책금융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안중근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강소·강소+기업에 지역기업 7개사가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해 선정된 기업들이 지역의 수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탐티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서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의원들 '2차 가해 중단해야'

포항시의회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안병국의원이 사과문을 내자 사건을 신고한 동료의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의원들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접수하고 하루도 되지 않아 매우 심각한 2차 가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원은 사과문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축소 왜곡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연결하는 프레임에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창명 기자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뜻 올렸다

이철우 경북지사, 국가차원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 등 세밀한 '디자인' 필요 강조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을 이번 주 내로 구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추진단은 행정통합추진단, 통합자문위원회, 통합연구지원단의 3대 조직으로 구성된다.

행정통합추진단은 기존 이미 자치·분권 정책을 준비, 총괄해온 지방시대정책국장이 맡는다. 과거에도 공문화와 통합실무를 추진했던 지방시대정책과와 전략기획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이 각각 통합추진과 통합전략수립 업무를 맡게 된다.

도는 행정통합에 관한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완전한 분권형 통합자치모델을 지향하는 행정통합을 위한 우선 제안과제들을 민관합동추진단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구체화한다.

통합자문위원회는 2020년 구성돼 활동했던 공문화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학계 및 시민사회 인사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관련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다.

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연구지원단은 행정통합 관련 정책연구를 주도했던 경북연구원이 주축이 돼 운영되며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구성한다.

경상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안)

행정통합추진단
통합추진과 (지방시대정책과)
통합전략과 (미래전략기획단)

사진은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조직구성

행정통합특별법,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권한이양과 세제개편 등의 과제들을 포함해 통합대구경북 미래전략에 대한 연구지원을 수행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통합자문위원회

전(前) 공문화위원회
민간전문가·지역대표

행정기관 통합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새로운 균형발전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과 재정 이양 특례 등 국가차원의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세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연구지원단

경북연구원
분권·자치전문가
행정·재정전문가

그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위한 청사진을 더욱 종합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도민 한 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통합의 내용과 통합 이후의 새로운 발전구상을 면밀히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용 기자

김창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상담 확대 조례안 마련

'찾아가는 상담실' 근거 마련
정신건강 인식 개선 등 추가

김창기(사진) 경북도 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경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1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상담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근거를 마련,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홍보 등을 추가했다.

'찾아가는 상담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전문심리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 실시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로 현재 경북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관련 조례에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개정조례안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찾아가는 상담실'의 운영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의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창기 도의원은 "조례안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확대 및 상담사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의 예방·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용 기자

경북교육청, 내년 예산 편성 학생·주민 의견 반영

경북도민 의견 적극 수렴
투명한 교육재정 힘쓴다

경북교육청은 12·새달 7일까지 도내 학생과 도민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 편성 방향 설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경북교육청은 201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민 참여예산제를 운영, 이번 설문조사도 주민 예산

참여의 한 방법으로 마련됐다.

설문조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과 분야별 예산 편성 우선순위 등 경북교육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2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학생 대상 설문조사는 13개 문항이다.

경북교육청은 설문에서 수렴된 의견을 2025년 예산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경북교육에 대한 도민의 생각을 예산에 반영한다.

설문조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 누리집 또는 각급 학교 누리집에 공지된 QR코드 접속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정기적인 설문조사 외에도 예산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예산 전용 누리집(www.gbe.kr/gbejumin)을 운영하고 있다.

장충찬 예산정보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경북교육에 대한 학생과 경북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투명한 교육재정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복지 분야와 체육교육 분야에 우선 투자를 바라는 도민과 학생의 의견을 반영, 2024년 예산 편성 시 유치원 돌봄 확대 운영과 체육시설 확충 등 9건의 사업에 898억 원을 편성할 바이다. 김성용 기자

iM뱅크, 시중은행 전환 기념 개인형IRP 행사

애플 에어팟, 스타벅스
기프트콘 등 추첨 증정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및 사명 변경에 맞춰 퇴직연금 개인형IRP 행사를 한다.

행사는 기존 iM뱅크의 IRP 보유고객과 신규 IRP 가입고객 모두 참여 가능하다.

7일부터 7월 5일까지 iM뱅크 개인형IRP에 1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입금 및 10만원 이상 펀드를 매수 완료하고, 전화·문자 마케팅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참여된다.

새달 12일 경품 추첨 예정일까지 행사 참여 조건을 충족하고 정상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애플 에어팟 3세대(3명), 스타벅스 기프트콘(200명)을 추첨 증정한다. iM뱅크는 2021년 10월 이후 비대면 채널 개설 개인형IRP 수수료를 면제했다.

2022년 12월 5일부터 퇴직연금 ETF 판매를 실시하는 등 개인형IRP 고객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객편의 제고 및 상품 서비스 개선으로 개인형IRP 원리금보장형 수익률 은행권 1위, 최근 3년간 개인형IRP 원리금보장형 수익률 은행권 3위(금융감독원 연금포털 2024년 1분기 기준)를 기록했다.

이해원 iM뱅크 영업지원그룹장은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과 사명 변경을 기념하여 개인형IRP 운용 경험을 확대하고자 행사를 마련, 시중은행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iM뱅크와 고객이 함께 성장해나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견...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일본뇌염주의보 발령

대구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 활동 과정에서 올해 처음으로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함에 따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동구 금강

로 소재 우사에 유문등(誘蚊燈, 모기 유인등)을 설치해 채집 모기의 종 분류, 밀도조사 및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 감염병 병원체 유무를 검사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2021년 6월 3일, 2022년 5월 12일, 2023년 6월 5일에 작은빨간집모기가 첫 발견됐으며 올해는 지난 10일 첫 발견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3월 29일 전남도와 제주지역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첫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조여은 기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12일 대구 EXCO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 개막식에 참석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 '2024 전기산업엑스포' 개막...

ON 세상을 밝히는 미래로
140개 사 참가 400여 부스

경북도가 12일 대구 EXCO에서 '2024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를 개막했다.

개막식은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전기산업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환영사, 축사, 개막 퍼포먼스, 전시장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경북도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기신문과 ㈜엑스코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자체 유일의 전기·전력산업 분야 전문 전시회로 오는 14일

까지 3일간 열린다.

행사는 'ON 세상을 밝히는 미래로'라는 주제로 140개 사가 참가해 400여 부스를 운영하며 발전·송배전·변전기재, 전기플랜트, 에너지 신산업 및 원자력 산업 분야의 신기술을 선보이고 제품들을 전시한다.

국내 전기·전력 관련 기업의 수출 진작과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 해외 16개 사의 바이어가 참여해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국내 발전사와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30여 개의 발주처와 참가기업 간의 구매상담회도 진행된다.

국내 전기·전력 대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전기산업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는 도내 고등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학생 단체관람을 위한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북은 국내 최대 원전의 집적지로 국내 26기의 원전 중 13기가 가동 중이다.

도는 안정적인 전기 생산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산업클러스터 조성(포항)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영덕·포항) △하이브리드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울진)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포항·안동·울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 행사가 전기·전력 분야의 혁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해 국내 전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센터,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에너지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5월 고용률 대구 하락 경북 상승

고용률 역대 최대라지만...대구는 여전히 어둠 터널 속

대구의 5월 고용률 58.7% 전년동월대비 3.2%p 하락
경북의 5월 고용률 65.3%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코로나19 이후 고용 지표에 훈풍이 불며 지난달 전국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초로 70%를 기록했지만, 대구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12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대구시·경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고용률은 58.7%로 전년 동월에 비해 3.2% 포인트(p) 하락했다.

경북은 65.3%로 전년 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고용률은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인 65.3%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과 같은 수치다.

고용 호조세가 꾸준히 이어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인 70%로 올라섰다.

동북지방통계청 관계자는 "균위균이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됐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은 인구 문제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다"며 "특히 경북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것은 분모인 15세 인구의 감소 폭이 분자인 취업자 감소 폭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2024 5월 대구광역시 고용동향

대구의 5월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3.2%p 하락했다.

15~64세(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9%p 하락한 66%다.

올해 1월 66.1%, 2월과 3월 65.8%, 4월 66.2% 등 65%와 66%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

고용률도 지난해 11월 59%를 기록한 이후 12월 57.9%, 올해 1월 57.5%, 2월 57.9% 등 줄곧 50%대에 머물고 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취업자는 123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3000명 감소했다.

전가·운수·통신·금융업(1천명), 농림어업(1천명)은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 3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 7000명), 제조업(-1만명), 건설업(-6000명)에서 감소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했다.

실업자는 5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늘었다.

남자는 9000명, 여자는 4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81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2000명 증가했다.

남자는 2만 3000명, 여자는 3만 9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15세 이상인구는

209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000명(1.0%) 증가했다.

남자는 101만 3000명으로 1만명(1.0%), 여자는 108만 3000명으로 1만 2000명(1.1%)이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28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000명(-3.1%) 줄었다.

남자는 71만 6000명으로 1만 3000명(-1.8%)이 줄었고, 여자는 56만 5000명으로 2만 8000명(-4.6%)이 감소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전년동월대비 2.6%p 하락했다.

남자는 70.7%로 2.0%p, 여자는 52.2%로 3.1%p 떨어졌다.

취업자 수도 줄었다.

5월 취업자는 123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3000명(-4.2%) 감소했다.

남자는 68만 7천명으로 2만 2000명(-3.1%), 여자는 54만 4000명으로 3만 2000명(-5.5%)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1만명(112.8%) 증가,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6만명(-36.2%) 감소했다.

1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7시간으로 3.6시간(-9.2%) 감소했다.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3.2%p 하락했다.

남자는 67.8%로 2.9%p, 여자는 50.2%로 3.5%p 하락했다.

5월 실업자는 5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32.6%) 증가했다.

남자는 2만 9000명으로 9000명(41.5%), 여자는 2만 2000명으로 4000명(22.3%) 증가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했다.

남자는 4.0%로 1.2%p, 여자는 3.9%로 0.9%p 상승했다.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81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2000명(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는 29만 7000명으로 2만 3000명(8.5%), 여자는 51만 8000명으로 3만 9000명(8.1%) 늘었다.

했다.

농림어업(-1만 9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4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000명)에서 감소했다.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했다.

실업자는 4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 증가했다. 남자는 4000명, 여자는 3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74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5000명 감소했는데 남자는 8000명, 여자는 1만 7000명이다.

5월 경북도 15세 이상인구는 228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명(-1.3%) 감소했다.

남자는 114만 8천명으로 1만 2000명(-1.1%), 여자는 113만 6000명으로 1만 8000명(-1.5%)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도 153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0.3%) 줄었다.

남자는 87만명으로 4000명(-0.5%), 여자는 66만 9000명으로 1000명(-0.1%) 감소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7.4%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했는데 남자는 75.8%로 0.4%p, 여자는 58.9%로 0.9%p이다.

5월 취업자는 149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000명(-0.8%) 줄었다.

남자는 84만 3000명으로 8000명(-1.0%), 여자는 64만 9000명으로 4000명(-0.6%)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8000명), 건설업(4000명)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만 9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4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000명)에서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2만명),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8000명)에서 증가했다.

하지만 농림어업숙련종사자(-2만 5000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만 2000명), 서비스·판매종사자(-3000명)에서 감소했다.

종사상지위별 임금근로자는 5000명(0.5%)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1만 7000명(-3.0%)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2만 5000명(11.4%), 일용근로자는 3000명(5.7%) 증가, 상용근로자는 2만 3000명(-3.5%)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3000명(-0.7%),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4000명(-10.2%) 줄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0만 7000명(97.1%) 증가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1만 6000명(-26.8%) 감소했다.

1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7.3시간으로 2.9시간(-7.2%) 줄었다.

고용률은 65.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남자는 73.5%로 0.1%p, 여자는 57.1%로 0.5%p이다.

5월 실업자는 4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17.1%) 증가했다.

남자는 2만 7000명으로 4000명(15.7%), 여자는 2만명으로 3000명(18.3%) 늘었다.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했다.

남자는 3.0%로 0.4%p, 여자는 3.0%로 0.5%p이다.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74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5000명(-3.2%) 감소했다.

남자는 27만 8000명으로 8000명(-2.7%), 여자는 46만 7000명으로 1만 7000명(-3.5%)이다.

조사대상은 표본조사구 약 3만 6000가구(경북 2000가구)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이다.

김성용 기자



2024 5월 대구광역시 고용동향

5월 경북의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며 65.3%를 기록했다.

15~64세(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고용률은 69.7%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다.

12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경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49만 2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만 2000명(0.8%)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5.3%로 전년 동월대비 0.3% 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1%p 오른 69.7%다.

취업자는 149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000명 감소했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8000명), 건설업(4000명)은 증가

산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1000명), 농림어업(1000명)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 3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 7000명), 제조업(-1만명), 건설업(-6000명)에서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 8000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000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3만 9천명), 서비스·판매종사자(-2만 9천명)에서 감소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5만 6000명(-5.6%) 감소했는데 비해, 비임금근로자는 3000명(1.1%)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만 2000명(-1.6%), 임시근로자는 3만 2000명(-14.3%), 일용근로자는 1만 3000명(-19.0%)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5000명(1.9%) 증가, 무급가족종사자는 2000명(-5.8%) 감소했다.

정안건설

정안건설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열정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수원 양수건설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인견이불 후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수건설처는 지난 11일 저소득 취약계층 20세대를 대상으로 여름 인견이불(280만원 상당) 20채를 강동면 행정복지센터(면장 백상희)에 전달했다.

한수원 양수건설처는 강동면 행정복지센터와 자매결연을 한 뒤 매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후원을 이어와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전달된 이불은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대상자 발굴을 통해 필요한 세대에 전달된다. 이춘술 한수원 양수건설처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 저소득 취약계층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인견이불을 후원하게 됐다."

경주시, 관광객 수 '조작' 더이상 못한다

무인 계측기 확대로 관광객 통계 객관성 높여 신뢰행정을 연말까지 총 101대 설치

경주시가 관광객 통계에 신뢰·정확도를 높인다.

시는 2억 원 예산을 들여 올 2월부터 지난 달까지 개방형 주요 관광지에 무인계측기 24대를 설치했다.

설치장소는 버스터미널(2대), 불국사(6대), 석굴암(4대), 경주역(3대), 보문단지 일대(6대), 오류, 나정, 주상절리 동해안권(3대) 등 총 6곳이다.

2021년 분황사 설치처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황리단길 및 동부사적지 일대에 무인계측기 41대, 지난해는 대릉원, 첨성대 등 주요 사적지에 30대를 설치했다.

올 하반기까지 6대를 추가 설치하면 연말까지 무인계측기가 23개소에 총 101대가 된다.

현재 설치된 무인계측기 시스템은 분석 구역 내 센서가 스마트폰이 발신하는 와이파이 신호를 감지해 방문객 수와 체류시간을 집계한다.

일·월별 통계자료를 산출할 수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에는 측정 자료의 정확도를 인정받아 개방형 관광지인 황리단길이 정부승인통계 주요 관광지지에 등록됐다.

주요 관광지지는 관광진흥법 등의 법령을 근거로 지자체 주요 관광지 중 관광진흥 정책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표 장소로 국가승인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광객 수를 증빙할 수 있는 지점만을 선정하고 있다.

오픈된 공간의 경우 중복집계 우려가 있어 관광지점으로 등록이 불가하나 데이터 신뢰성, 중복집계, 대표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시는 향후 관광정책 수립과 안전대책 관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속적으로 무인계측기를 확대 설치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무인계측기 운영은 관광객 통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향후 시정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자료로 활용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11일 '특별한 생일상' 행사를 개최한 후 참가 어르신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특별한 생일상' 행사를 열었다. 지난 11일 열린 '특별한 생일상' 행사는 매월 생일을 맞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

며 정성껏 팔밥과 미역국을 준비했다. 팔밥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소화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어르신들의 영양 소화를 보충하기 위해 준비됐다. 미역국은 해독과 건강 기능을 증진시키는 효능이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를 도와줬다. 행사에는 많은 봉사자

와 인근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특별한 날을 함께 나눴다. 박정우 경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주시,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오는 21일까지취약시설 집중 점검 시민들 안전하게 생활...환경 조성

경주시가 여름철 우기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사전에 정비하는 게 목적이다.

경주시 도로1·2팀 등 도로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1일까지 점검에 나선다.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안전점검을 위해 경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인력풀 등을 활용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23곳, 지역 내 법정도로, 우수관, 도로 배수시설 및 배반지하차도를 포함해 지역 내 총 9곳의 지하차도다.

급경사지의 경우 비탈면 상태, 낙석 및 토석류 발생 여부, 비탈면 시설 이상 유무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

도로 및 배수시설은 균열, 침하, 용기, 포트홀, 맨홀단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도로 배수시설 내 퇴적토사 유무와 집수정 청소여부도 꼼꼼히 들여다 본다.

지하차도의 경우 자동진입차단시설 작동 여부, 펌프시설 작동 및 배수주 준설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본다.

점검에서 이상 징후나 재해 위험성이 발견되면 긴급보수 공사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경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경주시 안전한 원자력, 안전한 미래 논의

기후변화와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미래 위협 대비 원자력 안전 논의

원자력 안전 최대 행사인 '2024 원자력안전 규제정보회의'가 지난 11.12일 이틀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사는 '안전한 원자력, 안전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1600여명이 참석했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안전 기술 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 회의는 기후변화와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응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첫날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특별강연, 정책세션, 정책좌담회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기술 세션을 15개 분과로 구분해 기후변화, 불법 드론 대응 방향 등 기술적 현안을 심층 토론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원자력의 안전한 관리, 합리적인 규제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해 국민과 소통하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원자력정책을 수립하



2024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의 개막식에서 주요 내빈들이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공동 주관했다.

경주 산내면 동창천에 다슬리 45만 마리 방류

경주시가 내수면 생태계 유지와 자원회복을 위해 12일 산내면 의곡리 동창천 일대에서 다슬기 45만 마리를 방류했다. 현장에는 지역 자생단체와 의곡초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해

깨끗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의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다슬기를 분류하면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워 큰 효능을 얻었다.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청송군, 농촌생활공간 개선 786억 전격 투입

지역주민 위한 쾌적 생활공간 조성 앞장

청송군이 농촌생활공간 개선에 786억 예산을 전격 투입한다. 군이 농식품부 주관 2024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 34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농촌재생 및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농식품부가 5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기존에 확보한 사업비와 함께 정주인구를 늘리고 농촌에 활력을 일으키는 농촌공간 개선 사업 추진에 총 78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실제 농촌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가 지방 소멸 우려가 크다. 때문에 군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로 농촌다움의 회복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 개선 사업을 한다. 군은 주변 경관과 조화될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80억) △청송읍 거대리, 주왕산면 신정리, 부남면 하수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총 60

억) △진보면 각산리 외 3개소 마을 만들기사업(20억) △덕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180억) 등 농촌 공간 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공모 사업에 참여 국비를 확보했다. 군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준비해 왔다. 2022년부터 주민현장 포럼, 농촌협약위원회 개최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군은 이미 진행 중인 청송읍과 함께 진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 교통, 문화, 복지, 휴게 등 생활서비스 기능 확충 및 고도화와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이 진행되는 주왕산-부남-현동-현서-안덕-파천면에는 기초 생활서비스 기능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청송군은 농촌중심지와 기초 생활 거점 간 생활권 연계를 통해 불편 없는 생활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농촌 공간의 가치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로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인구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김미선 대표, 500만원 기부

에스엠테크 김미선 대표가 지난 11일 영덕군청을 방문해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공감해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청송소방서, 긴급구조훈련

청송소방서는 지난 11일 여름철 극한호우 대비 긴급구조훈련했다.

문정환 청송소방서장은 "여름철 극한 호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하는 것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숙지하여 안전한 여름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도군 농산물 공판장 개장

청도군은 지난 10일 새청도농협 공판장을 시작으로 11일 청도농협-칠성농산 공판장을 개장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생산농가의 노력을 통해 품질 좋은 최고의 제품을 생산·출하하고 중도매인은 청도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광열 영덕군수가 12일 병곡면에서 열린 소비자권익증진 행사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고있다.

영덕군,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인기몰이

국내 굴지 기업들과 소비자 피해 교육과 제품 무상점검

영덕군과 한국소비자원은 경북도,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와 함께 12일 병곡면에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20개 협업 기관이 참여해 교육, 이동 상담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과 자동차·가전제품 무상점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펼쳐졌다.

영덕농협 병곡지점은 키오스크와 두넛돌 이용 방법, 보이스피싱 주의 사항, 식품 소비기한 등 고

령자의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을 했다.

지역 어르신 114명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신활영행사도 함께 개최했다.

전문성이 있는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대구·경북지역의 시니어소비자지킴이가 전문 강사로 나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했다.

현대자동차, 기아,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한국지엠 등 국내 자동차 5개 회사가 주민들을 위한 차량 무상점검을, 삼성전자, LG전자, 쿠쿠전자, 쿠첸,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오탁캐리어, 휴롬엘스 등 국내 주요 회사가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가전제품을 무상점검하고 수리를 지원했다.

유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이번 행사가 영덕군 어르신들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방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방의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 방법과 절차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소비자원을 비롯, 함께한 많은 기관·단체가 힘을 모아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에 밀착한 제품들을 점검·수리해 주신 것에 매우 뜻깊게 여긴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조여은 기자**

울진군, 군민의 생명 재산보호 앞장

손병복 울진군수 주요 사업장 점검 사고 제로화 도전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난 11일 '2024 군민 섬김데이' 일환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내 주요 사

업장 5곳을 방문, 현장점검 및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근남산포 배수펌프장을 방문, 임시가동을 통한 시설점검을 했다.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따라 지난해 준공된 읍남리 방파제를 둘러보며 인근 주민들의 안전 등을 살폈다. 호월리 산불피해지 춘기복구조립 지역을

방문, 조립 예정지 확인 및 식수 등을 살폈다.

화방전 정비사업 교량건설 현황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관리를 점검했다.

북면 나곡5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현장에서는 군민들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상수도 공사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라며 작업자들에게 당부했다.

북면사무소를 찾아 현업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수 기자**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난 11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내 주요 사업장 5곳을 방문,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영양군, "장계향과 함께하는 군자교육"

'장계향과 함께하는 군자교육' 이인이다. 영양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1일에 이어 13일 2회에 걸쳐 다문화가족 30여 명을 대상으로 석보 두들마을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에서 이같은 행사를 한다.

교육은 여성 군자 장계향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이영우(영양축제관광재단 이사장) 강사를 초빙, 석보 두들마을 고택 탐방, 군자의 정좌 명상과 두들마을 장계향의 흔적을 찾아 이야기 나누기, 다도 체험, 음식디미방 소부상체험 등으로 지역 문화이해 및 문화자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글 최초의 요리서 '음식디미방'을 저술한 장계향(張桂香, 1598~1680)은 조선 중기 학자인 경당 장흥효(張興孝, 1564~1633)와 안동 권씨 사이에서 의동팔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시와 서예, 문학에 뛰어났다.

13세에 지은 '학발시(鶴髮詩)' 등의 작품도 알려져 있다.

19세(1616년, 광해군 8년)에 석계 이시명(石溪李時明)과 혼인, 43세가 되던 1640년 지금의 재령 이씨 증가가 있는 영양군 석보면으로 이주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33·우즈베키스탄)은 "한글로 정리된 음식디미방 책을 쓴 여성 군자 장계향의 지혜를 배우고 인성교육으로 다도 체험도 직접 해 볼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에 거주하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장계향 음식디미방 체험을 통해 우리 음식의 우수성과 음식문화를 이해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울진군 공고 제2024-1008호

산포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유수지)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산포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라 의제되는 군관리계획(유수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11.
울진군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의 명칭: 산포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울진군수
 - 주소: 경상북도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변경)**
 - 위치: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73-1번지 일원
 - 사업면적: A=10,281㎡
 - 사업규모

구분	필요장	유수지	토출수로	배수로	
사업량	기정	수중펌프 (320kw×1,350mm×4대) 제진기(4.05m×4.3m×4대)	A=5,860㎡ 전석쌓기(=1,456㎡)	토출수조=412㎡ 배수로(3.0m×2.0m×2연)	배수로 덧쌓기 H=0.6m, L=363m 노출리배수로보강 (1.0m×1.0m×1연) 382m
	변경	수중펌프 (320kw×1,350mm×4대) 제진기(4.05m×4.3m×4대) 비상발전기 1식	A=5,860㎡ 전석쌓기(=1,456㎡)	토출수조=412㎡ 배수로(3.0m×2.0m×2연)	배수로 덧쌓기 H=0.6m, L=363m 노출리배수로보강 (1.0m×1.0m×1연) 382m
- 사업 착수에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사업 착수일: 2016년 12월 15일
 - 사업 준공예정일: 기정: 2017년 12월 31일 · 변경: 2024년 10월 31일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방제시설
 -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근남	산포 유수지	유수 시설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773-1번지 일원	8,597	중)1,366	9,963	울진군 고시 제2016-236호	-

◎ 유수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근남	산포 유수지	· 유수지 구역 변경 - A=8,597㎡ → 9,963㎡ (중 1,366㎡)	· 산포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결정된 유수지의 방류하천을 원피천에서 산포천으로 변경하고(울진군 공고 제2019-405호), 집중호우 시를 대비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유수지구역 변경
- 열람장소, 열람기간, 의견제출방법**
 - 열람장소: 울진군 안전재단과, 근남면사무소
 - 열람기간: 2024년 6월 11일 ~ 2024년 6월 28일 (14일간)
 - 의견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관계도서의 열람**
 -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진군 안전재단과(☎054-789-61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사랑의 물품 기부행사

의성군 (주)수플러스, 지역 아동에 자두젤리стик 기탁

의성군은 (주)수플러스(대표 강희수)가 지난 11일 지역사회 내 아동들을 위해 콜라겐 자두젤리стик 300세트(13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물품은 의성산자두로 만든 저분자 콜라겐 젤리стик으로 관내 아동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수플러스는 의성군의 지역 농산물로 안녕자두야(아문즈)와 계약하여 의성자두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시에 브랜드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농가와 기업의 매출 향상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박재성 기자

의성군, 신제품 '의성진쌀' 성공 재배 다짐



의성군은 지난 7일 '의성진쌀, 새롭게 태어나다! 최고 품질을 약속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의성군, RPC대표, 의성진쌀연합회가 모여 올해 신제품으로 재배하는 의성진쌀 성공 재배를 다짐했다.

군은 전체 비재배면적 대비 24%에 달하는 2,200ha에 미소진미, 영호진미, 미감 등 다양한 벼 품종을 도입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로운 품종은 기존의 일백벼보다 도열병 및 도복에 강하고 단백질 함량이 낮아 밤맛 또한 우수한 쌀로 고품질 의성 쌀 생산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단백질 검사, 유전자분석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6월 선남면 이장&직원 청렴잇기

성주군 선남면은 공정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이장과 직원이 함께 청렴 실천 메시지를 지난 11일 전달하고, 청렴 의지를 다지는 선남면 이장&직원 청렴잇기 행사를 가졌다.

이는 청렴성주 달성을 위해 선남면에서 선정한 '1부서 1청렴시책'으로써 월 1회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용신 1·2·3리 이장이 두 번째 주자로 참여했다. 도재훈 기자

봉화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양돈농장 ASF 방역실태 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수칙 준수 홍보

봉화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돈사 등 시설물 침수, 토사 유입에 따른 오염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12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농장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산과 하천에 인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큰 양돈농장 8곳을 대상으로 경북도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배수로 등 시설물을 비롯한 방역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집중호우 기간 양돈농가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도 홍보한다. 이번 점검의 배경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산·하

수, 토사 유입에 따른 오염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12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농장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산과 하천에 인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큰 양돈농장 8곳을 대상으로 경북도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배수로 등 시설물을 비롯한 방역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집중호우 기간 양돈농가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도 홍보한다. 이번 점검의 배경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산·하

수, 토사 유입에 따른 오염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12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농장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산과 하천에 인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큰 양돈농장 8곳을 대상으로 경북도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배수로 등 시설물을 비롯한 방역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집중호우 기간 양돈농가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도 홍보한다. 이번 점검의 배경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산·하



고령군 고품질 샤인머스켓 교육 실시

포도작목반 농업인 대상 매달 1회, 3년제 맞춤교육

고령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및 농가 현장에서 포도작목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 고품질 샤인머스켓 과원 관리" 재배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임병엽 지도사는 7월 포도 과원 물관리, 병해충관리, 생리장해관리, 비료관리 이론 교육 후 우곡면 최중대 농업인 농장으로 이동하여 샤인머스켓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규 포도 재배 농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포도 전문 지도사를 초빙해 2022년부터 3년제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지역특화시범 사업을 지원하며 본 사업에 맞추어 4월 '월별 포도원 과원 관리', 5월 '화수정리 실습 및 생장조절제처리 방법' 6월 '샤인머스켓 알숙기' 교육을 실시했다.

2024년에는 매달 1회씩 전문강사를 초빙해 3월부터 10월까지 다음 달을 대비하기 위한 월별 포도 과원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중대 우곡면 농장주는 2023년 기술센터의 지

역특화시범사업을 통해 "아임샤인" 고령군 포도작목반 공동브랜드 개발을 완료해 김명규, 나영완, 최중대 3명의 선도농가가 올해 아임샤인 브랜드 런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포도 작목반 회원들이 올해 월별 포도 관리 교육을 통해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는 기술을 익혀 2025년부터는 많은 회원들이 "아임샤인"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해 고령군 샤인머스켓 직거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청(군수 이남철)은 포도작목반이 원활히 교육을 잘 받고 재배기술을 익혀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샤인머스켓의 가격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 및 브랜드화(아임샤인)가 필수적인데, 고령군청이 고령군 포도작목반의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영백 기자

천 인접 농장과 침수피해 농장은 야생멧돼지 폐사체나 ASF 검출지점의 오염된 흙이 하천 범람과 산사태로 인해 농장 내 또는 주변으로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험농가를 사전에 예방 관리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수로 설치·정비 여부 △농장 내·외부 울타리 설치 여부 △차량·대인 소독 시설 설치·작동 여부 △부출입구 폐쇄 여부 △침수 우려농장에 대해 상수도 사용 △구서·구충 실시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행동수칙 준수 등 집중호우 기간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농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행정명령 및 공고된 방역기준과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례를 중점 점검해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완 완료 시까지 중점 관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엄중하게 조치해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금년도에 ASF가 발생한 경북 영덕군,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철원군의 양돈농장 3개소 모두 기본 방역수칙 이행에 소홀함이 발견됐다"며 "농장에서는 호우 전 배수로 정비,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차단과 소독, 돈사 출입시 전실이용과 장화 갈아신기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양돈농장에서 41건이 확인됐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봉화군 90건을 포함해 전국 45개 시군구에서 4067건이 검출됐다. 전상기 기자

영천시, 2024 자원봉사대학 개강식

영천시자원봉사센터는 12일 다나눔센터 1층 교육실에서 영천시 자원봉사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영천시 자원봉사대학은 자원봉사와 결합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분야의 영역을 확대하고, 노력봉사활동을 넘어선 전문기술을 가진 자원봉사를 양성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으로 올해는 정리수납, 페이퍼플라워 2과목이 개설됐으며, 10회 교육과정이 끝나면 전문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개강식에서는 사업소개 및 교육과목 안내, 단체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힐링 룸스프레이 만들기 특강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의 돌봄과 감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향기를 통한 감정 표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구홍우 소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자원봉사대학을 통해 자원봉사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최은하 기자

고령군 보금자리봉사회, 우수 어르신께 점심 대접

고령군의 보금자리봉사회는 지난 11일 우수면 화양1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30여 명을 모시고 무료급식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어르신들은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닭곰탕과 다과를 드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따뜻하고 맛있는 점심을 마련해준 보금자리봉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영천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운영 중단 위기

영천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됐다. 지역 내 유일하게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최근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 코로나19 대응, 의사 집단행동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의사 연봉의 가파른 상승이 주된 적자 원인으로, 지방 의사 구인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은 1999년 개원 이래,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2.3%(초고령사회 기준 20% 대비 1.6배)로, 노인성 질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내 종합병원과 응급실 유지는 필수

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보금자리봉사회는 우리군으로 귀농, 귀촌한 주민들로 이루어진 봉사단체로 무료급식 봉사활동 외에도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수리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꾸준히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여 귀감이 되는 단체이다.

김남순 회장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회원들이 많은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복지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배영백 기자

적이다.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의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간 의료 부분 결산 결과 6904백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3년 평균 23억원 정도이다. 그 중, 적자의 절반 이상인 12억 정도가 응급실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이 추가로 채용한 비상진료 의사 및 간호사 신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의 경우 사립 종합병원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역 종합병원의 안정적 유지와 지역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불가결한 일로, 영천시는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로 6월 추경에 2억 원을 신청해, 총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하 기자

영주시, 교육혁신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

2차 공모 신청 계획... 지역 미래 인재 양성에 총력

영주시가 지역 공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소재·부품·장비 산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2차 공모 신청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정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국비지원과 다양한 교육 관련 규제 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인 3년이 지나면 정식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방안과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등 전 부서와 협업해 영주시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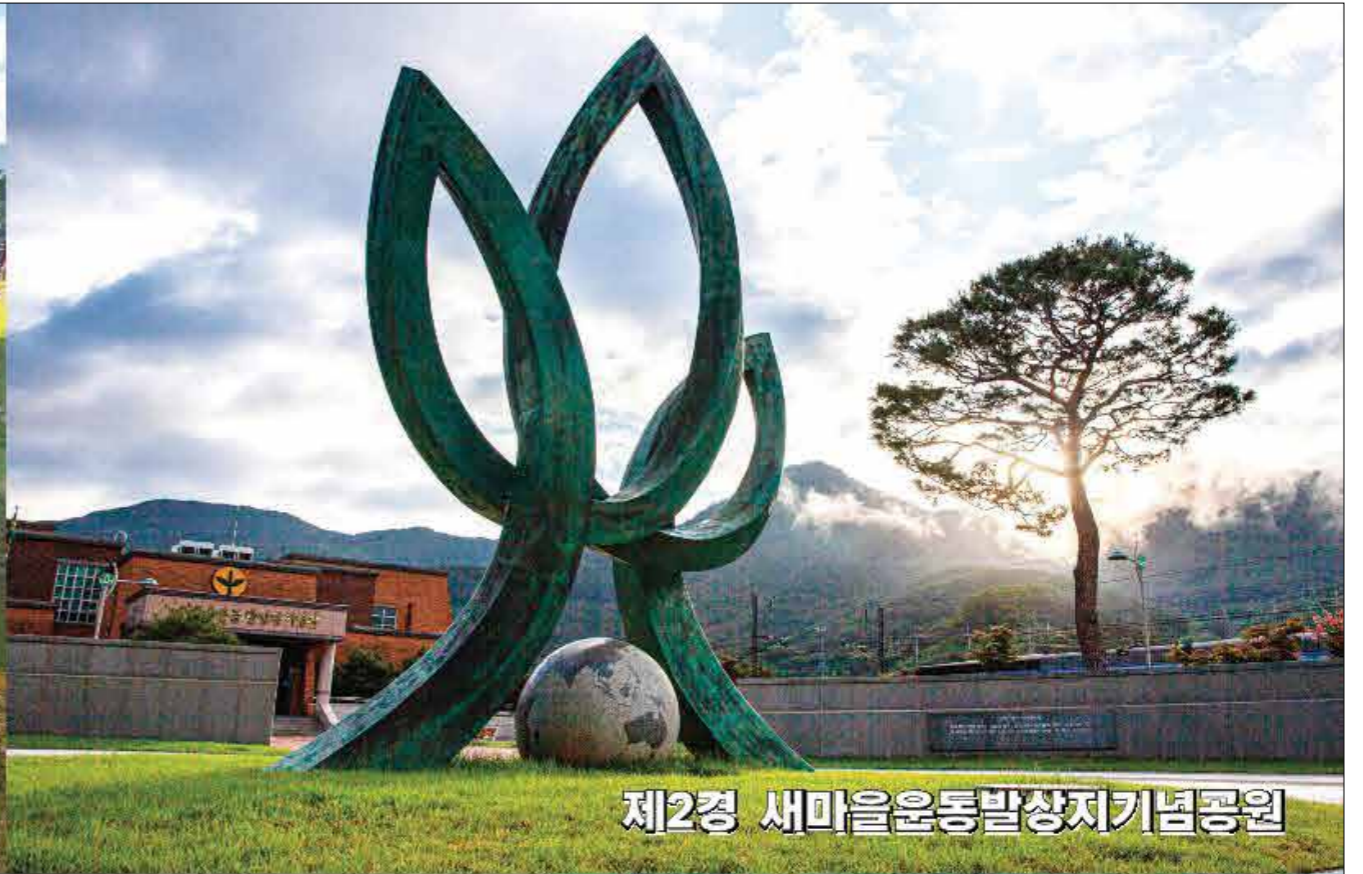
또한 14일 경상북도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전략수립 등을 위한 업무 협약



식도가 될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 교육발전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를 준비해왔다"며, "영주교육지원청, 학교 및 기업체와의 지역협력체 구성 협약을 통해 최적의 교육 모델을 만들어 시범지역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결과는 7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전상기 기자



제1경 청도읍성



제2경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제3경 청도신화랑풍류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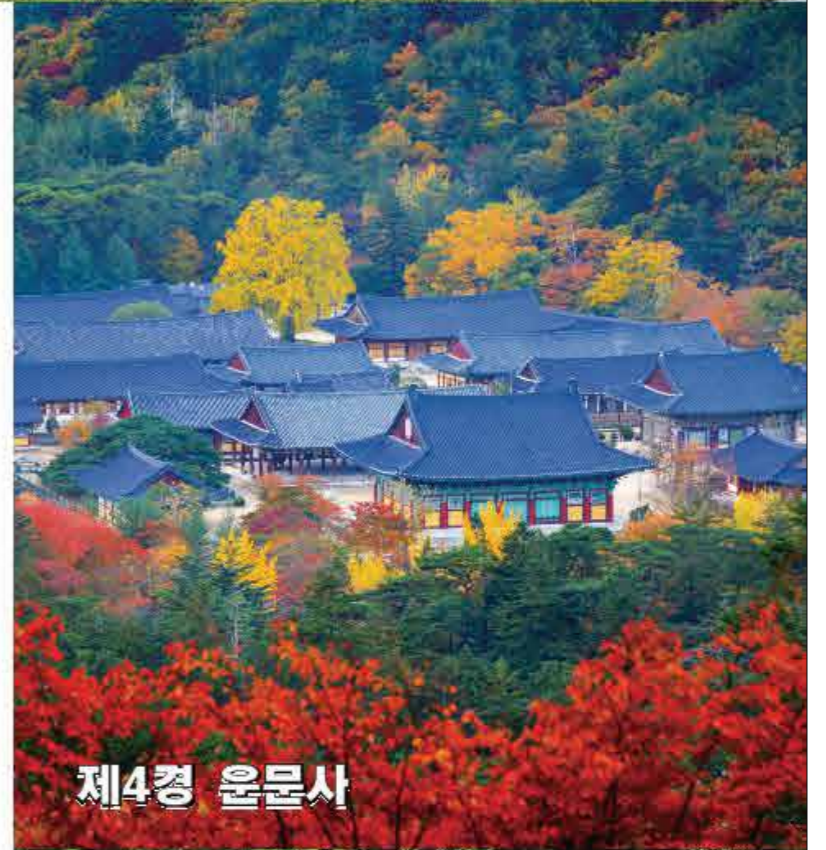
자연과 문화가 숨쉬는

청도 관광 9경

청도로 구경가자!!

청도군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청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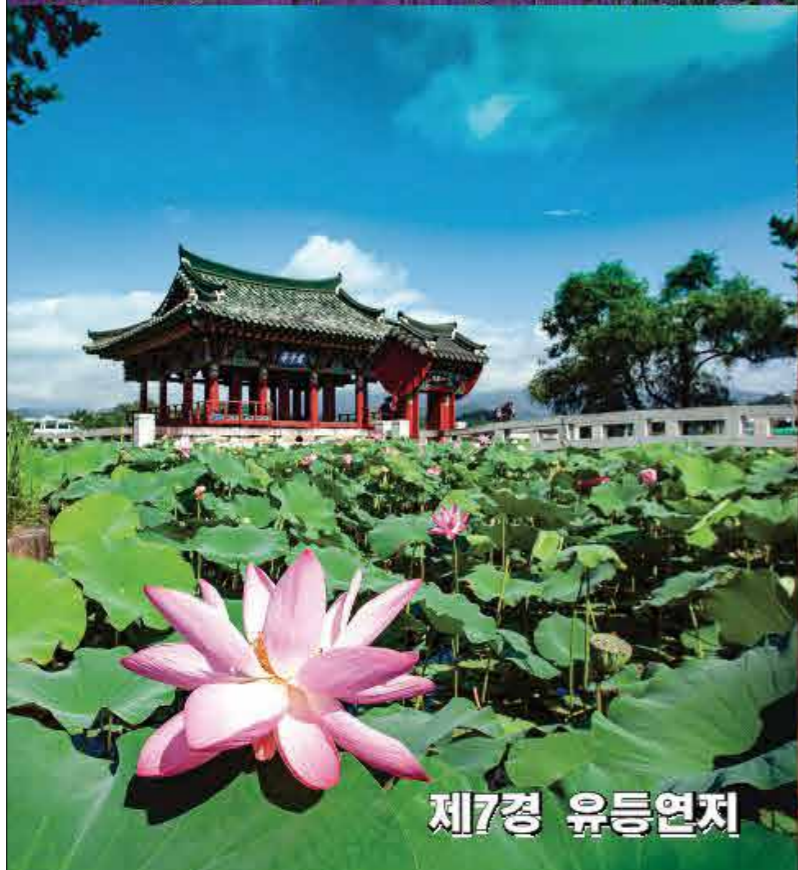
제4경 운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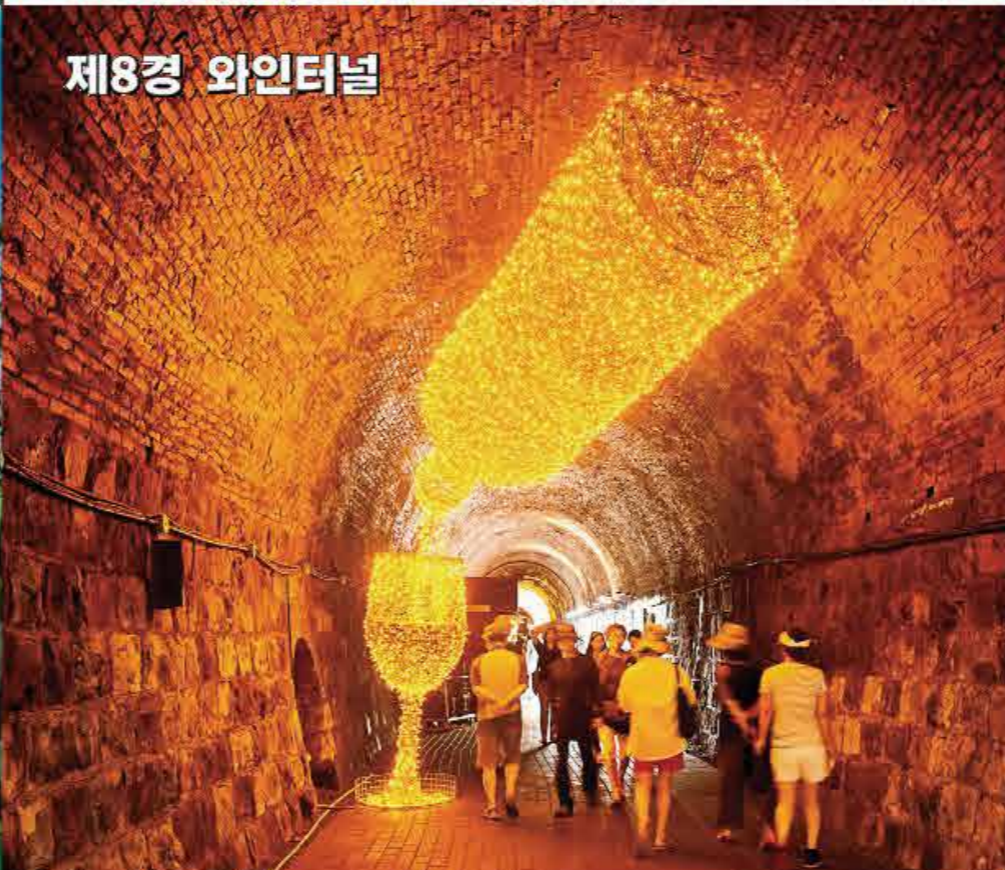
제5경 십마리한옥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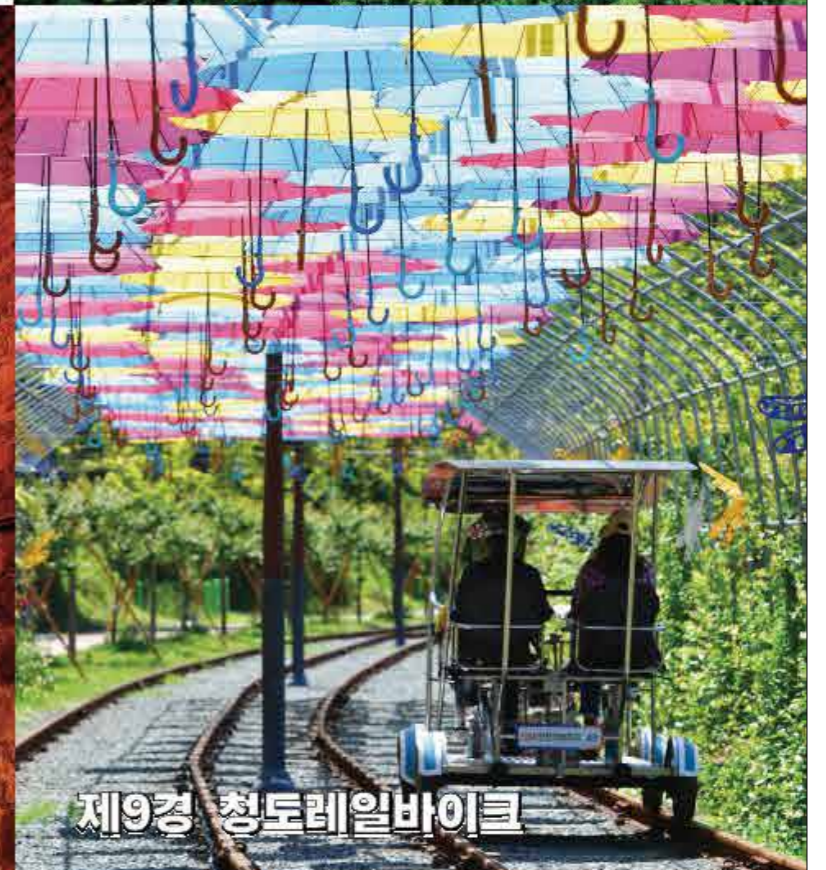
제6경 낙대폭포



제7경 유등연지



제8경 와인터널



제9경 청도레일바이크